

<2018, 5.18문학상 신인상> 소설 심사평

어떤 문학상이든 최종심에서는 분야별로 단 한 편의 작품만 뽑힌다. 그러다 보니 머리털 한 올의 차이로 탈락하는 안타까운 작품이 생겨나게 마련이다.

총 90여 편의 응모작 중 예심을 통과한 작품은 <헬로우 미스터 몽키>, <지나가지 않는 시간>, <뼈의 안부>, <발포명령>, <유다의 새>, <덧>, 이렇게 6작품이었다.

문학상의 성격에 맞추어야 한다는 강박이 작용했는지 알 수 없으나 많은 작품들이 5월 광주를 다큐멘터리 식으로 장황하게 묘사하거나, 민주화 투쟁을 소재로 고통당하고 상처받은 이들을 형상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았다. 그러한 소설들은 소설이 기본적으로 허구이고, 사실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예술적 감수성과 작가적 세계관이 어우러져 그 소설만의 독특한 개성을 창출해야 한다는 기본 전제를 잊은 듯이 보였다. 한풀이나 뉘드리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표출되거나, 용서할 때가 되지 않았냐는 식의 해묵은 담론의 재생산에 그치는 경우도 많았다.

신인상인 만큼 광주 5월이 갖는 현재적 의미를 재해석하는 패기 있고 도전적인 작품을 기대했으나, 상투적이고 낡은 소설기법을 동원한 경우가 많았고, 주제 역시 깊이 있게 다루어진 작품이 많지 않았다. 문제 제기만 해놓고 그 해결과정을 보여주지 못해 소설적 완성도가 떨어지는 작품도 적지 않았다.

예심을 통과한 작품 이외에도 몇몇 눈길을 끈 작품들도 물론 있었다. 5.18문학상 응모작답게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드높이고, 인간의 위선과 초라함의 이면에 내재된 존엄성과 삶의 승업함을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어 나름의 성취를 이루고 있었다. 심사기준은 크게 세 방향으로 잡았다. 신인상인 만큼 강한 주제의식과 독창성, 그리고 도전적인 감수성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그렇게 분류하고 보니 <발포명령>과 <유다의 새>, 그리고 당선작으로 최종 결정된 <덧>이 그 중 수작으로 뽑혔다.

<유다의 새>는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벌어진 교수 사회의 배신과 위선의 상황들을 낮은 호흡과 안정된 필치로 그려내고 있었다. 공들여 쓴 문장과 깊은 사유가 돋보이는 작품이었으나 신인다운 도전의식과 패기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아쉬움이 있었다.

당선작과 끝까지 우열을 다툰 작품은 <발포명령>이었다. 사춘기 소년이 인식하는 광주 5월과 세월호 희생자 또래 아들을 둔 엄마와의 양 방향 시점이 교호하며, 최근 우리 사회의 갈등상황을 탁월하게 그려냈다. 다만 뉴스에서 익히 보아온 듯한 날 것 그대로의 사실적인 보고처럼 여겨져, 문학적 세공 과정이 좀더 가해졌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남았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덧>은 고시원에서 살며 취업준비에 목매는 청년의 애환을 잘 그려낸 작품이다. 도전하는 시험마다 낙방하면서 열등감과 우울감이 커지는 과정, 용돈이라도 벌겠다는 심정으로 댓글 알바가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고시원 운영자의 부당한 행위에 반발하여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분투가 젊은이들의 당대 현실을 잘 드러내고 있을 뿐더러, 자존감 상실과 회복이라는 두 축을 넘나드는 과정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기념과 배제의 대상으로 그 위상을 넘나들곤 했던 광주 5.18의 은유처럼 읽히는 측면이 있었다. 다만 댓글 알바를 ‘애국’이라는 단어로 포장하는 화자 자신의 합리화 과정에 대한 성찰이 작품 안에서 드러나

지 않는다는 점은 아쉬웠다. 인물 창조에 있어 개성과 개연성의 문제에 보다 천착하길 권유하고 싶다.

광주 5.18은 광주만의 것이 아니다. 인간의 존엄과 인권, 그리고 각자가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민주주의적 가치가 우리 삶의 토대라면 그 어디에나 5.18의 정신은 숨어있다 할 것이다. 우리 삶의 성장과 아름다움에 기여하고 싶다면 5.18 정신의 외연을 확장시키는 멋진 작품들이 더 많이 쓰이고 읽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심사위원 : 이진, 정용준